

서구, 광주 최초 공공 반려견놀이터 30일 개장



풍암생활체육공원 반려견놀이터 전경

/광주 서구청 제공

반려견 전용공간 조성, 안전한 반려문화 기대 QR 인증 출입 도입...27일 개장식 개최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광주 최초 공공 반려견놀이터를 풍암생활체육공원에 조성하고 오는 30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반려견놀이터는 예산 2억 4000만원을 투입해 총면적 864㎡ 규모로 조성했다.

대형견과 중소형견 공간을 분리하고 그늘막, 휴게의자, 음수대, 배변수거함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반려견과 보호자의 이용 편의를 높였다. 서구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반려인과 비반려인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와 설문조사를 실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는 임시 개장 기간에도 이용자 의견을 반영해 시설을 보완할 계획이다.

반려견놀이터는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견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 안전한 이용을 위해 반려견 QR 출입인증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보호자는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반려견 등록정보를 입력해 발급받은 QR 코드로 출입할 수 있다.

본격 운영에 앞서 오는 27일 주민과 반려인이 함께 참여하는 개장식을 개최한다. TV 프로그램 '동물농장' 출연으로 잘 알려진 이용종 동신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공존문화'를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펫티켓 교육, 반려동물 정책 홍보, 포토존 운영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진행한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광주 최초 공공 반려견놀이터가 성숙한 반려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반려친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구는 반려견놀이터가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며 공존하는 소통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시설과 운영 방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시설 점검과 환경정비도 실시한다.

반려동물 관련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을 확대해 올바른 반려문화 확산에도 힘을 보태겠다.

/이가영 기자

북구, 지역 작가와 청소년이 함께하는 '홉타운공방' 운영

다이어리·키링·쿠션 만들기 체험 10월까지 온라인 신청 접수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지역 작가의 주도로 2세대 감성이 반영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을 희망의 거리 일대에서 선보인다.

2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27일 광주 남도향도음식박물관 1층에 조성된 홉타운(HOPE TOWN)에서 '2026년 홉타운공방'이 열린다.

이번 사업은 감수성이 풍부한 청소년들이 다양한 창작 과정에 참여해 자신의 개성을 표현하고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세부 프로그램은 ▲나만의 다이어리 커버 만들기 ▲액막이 장식 만들기 ▲친환경 키백 만들기 ▲광주

대표 음식 키링 만들기 ▲쿠션 만들기 등 5개로 구성됐다.

전문성을 갖춘 지역 공방 작가가 2시간 동안 체험 과정 전반을 이끌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북구가 준비한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0월까지 총 5회 진행되며 회차별 25명씩 총 125명에게 제공될 계획이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주민은 안내 포스터에 기록된 QR코드를 스캔해 이름, 주소, 참여 희망 프로그램 등을 입력하면 된다.

참가자는 선착순으로 모집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북구청

체육관광과(☎062-410-6624)에 문의하면 된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희망의 거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수준 높은 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북구는 이번 프로그램이 청소년들의 창의력과 문화적 감수성을 키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역 공방 작가들이 직접 참여해 체험의 완성도와 전문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가자들은 단순한 만들기 체험을 넘어 자신만의 개성과 취향을 작품에 담아낼 수 있다.

또한 포레들과 함께 소통하며 협동과 배려의 가치를 배우는 시간도

가질 수 있다. 체험 결과물은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어 참여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구는 프로그램 운영 과정에서 참가자 의견을 수렴해 향후 콘텐츠 개발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자신의 재능과 작품 세계를 알릴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이를 통해 지역 문화 예술 생태계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희망의 거리가 청소년과 주민이 함께 찾는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전망이다.

북구는 앞으로도 세대별 수요를 반영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예술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을 기울인다.

/김재섭 기자

회차	일자	프로그램	재료비	프로그램예시
1회차	6.27 (목)	나만의 다이어리 커버 & 희망 투박 액자 만들기	10,000원	
2회차	7.25 (목)	나의 행복과 안전을 지켜줄 액자키링 만들기	10,000원	
3회차	8.22 (목)	친환경 키백 + 액자키링 만들기	10,000원	
4회차	9.19 (목)	광주 양말 7마리 만들기	5,000원	
5회차	10.17 (목)	나만의 특별한 추억이 담긴 액자 키링 만들기	10,000원	

운영일 & 프로그램

체험안내

- 장소: 남도향도음식박물관 1층 (광주 북구 실목로 477)
- 체험시간: 10:30~12:00
- 참가대상: 초등학생부터 성인까지 참여 가능(사전 신청 필수)
- 체험혜택: 전문 강사를 통해 소정의 금액으로 참여하고, 완성된 작품을 직접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홉타운 공방 프로그램 일정 포스터

/광주 북구청 제공

